

## 人格의 實現

金斗憲

왜 우리는 道德的이라야 하느냐? 이것은 人生에 對하여 아무 생각이 없는 者에게는 平凡한 疑問이 되고 마리라. 그러나 깊이 思索을 人生의 問題에 기울릴 때 그것은 至極히 尊重한 課題인것을 알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으로서 마땅히 갈길을 밝히려 하는것인까닭이다. 우리가 道德的이라면 價値있는 人生이 될것이요, 道德的이 아니라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것이니 理性的存在인 우리는 어찌 道德的인 길을 取하지 않을수 있으리요?

世上에는 道德이라는것을 힘 없는것 可憐한것 所用없는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反道德的인 사람이 많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意見을 들으면 大概 이렇다.

첫째에 道德이란것을 무엇을 얻기 爲한 方便으로 생각한다. 例컨대 財産을 모으는대 또는 名譽를 얻는대 必要한 手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道德的이므로 因하여 그 目的物을 達成하지 못할 때에는 곧 道德이라는것이 아무 所用없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道德의 本義를 알지 못한 誤見이라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本來 道德이라는것은 무엇을 하는대 必要한 手段이 아니라 그 自身絶對性을 가진것이요 道德的인 그것이 人生의 目的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칸트」는 道德律을 無上命法이라 하였다. 卽 우리의 實踐理性이 마땅히 하지아니하면 안될 義務를 遂行하도록 絶對적으로 命令한것이다. 그렇다면 道德이란것을 한갓 方便으로 생각할바가 아닐것이다.

둘째로 道德이란것을 保守的인것 因■的인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無活力한것을 非難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또한 道德이란것을 全然히 進歩發展 없는것이라고만 생각하는 誤見에서 나온것이다. 道德은 그 本質上 實行이 重要한 일이다. 單只 아는것만으로는 아무 價値가 없을것이라. 일즉 「소크라테스」가 知德一致論을 主張하고 「王陽明」이 知行一致論을 提唱하였음은 곧 實踐을 重要視한 까닭이다. 그런데 이 實行이란것은 有意的 反覆에 依하여 德을 이루는것이요, 德은 곧 習慣性이므로 道德은 保守的 性質을 包含한것이

다. 그러나 이 保守的인 習慣性이 程度를 지나칠 때에는 道德의 眞生命을 잃어버릴것이요, 社會的 因■의 弊害는 또한 여기에 생기는것이다. 벌써 道德의 本義를 잃어버린 因■을 反對함은 勿論 道德의 發展上 必要한 일이요, 그것이 곧 人格을 實現하는 過程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因■的 道德을 곧 道德의 本質이라고 생각함은 곧 誤見이라 하겠다. 道德은 時代에 따라 進步發展한것이므로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셋째로 道德이란것을 藝術 또는 宗教와 相反한것이라하여 排斥하려는 사람이 있다. 藝術과 道德과의 關係 宗教와 道德과의 關係를 여기에 簡單히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道德의 本質을 이룬 善의 價値 藝術의 本質을 이룬 美의 價値, 宗教의 本質을 이룬 聖의 價値는 所謂 文化價値로서 相反矛盾한것이 아니라 相互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人格의 全體的 活動의 一要素를 이루는것임은 明瞭하다. 이러한 諸價値의 圓滿調和있는 實現이 곧 道德의 極致이다. 多方面으로 高尚한 趣味를 가짐은 곧 人格의 豊富를 말함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人格의 本義를 잃어버리고 反道德的으로 本能의 享樂을 爲主한 藝術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價値없는 藝術이되고 말것이다.

넷째로 現實의 生活에 너무 고달퍼 다만 現在의 生命을 維持한것이 唯一한 活動이요 理想이니 道德이니 생각할 餘裕가 없다하여 道德無要을 부르짖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사람은 本意的으로 現實的인 同時에 理想的이다. 現實의 苦悶■을 克服하고 理想을 實現하려고 努力하는데 道德의 本義가 있을 것이다. (此間三行■) 이제 道德의 階級性을 찾고 道德의 革新을 부르짖음은 既成道德을 背反함에 不過한것이요 道德의 本質을 否認함은 아닐것이다. 階級の 鬪爭도 道德의 本質이 아닐것이요 既成道德을 反背함도 道德의 本質이 아닐것이요 오즉 그것으로 因하여 人格의 本質을 發■하는데 ■■의 根本意義가 있을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데 道德은 人生의 不可缺한 價値요 道德的인것은 곧 人生의 尊貴한 目的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사람은 道德的이지 않으면 안될 根據를 살펴보자.

우리는 本能的으로 無數雜多한 慾望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그 慾望을 充足할 때에 滿足을 얻는다. 그러나 사람의 慾望은 制限이 없는것이라 慾望대로 둔다하면 사람은 支離滅裂의 地境에 이를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慾望을 秩序있게하고 統制하여 사람의 活動을 統一있게 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이다. 卽 全體로서의 自己活動을 생각하지 않고 部分的 慾望만을 充足시킴은 決코 全體로서의 自己滿足을 얻게하는 길이 아닐것이다. 따라서 全體로서의 自己滿足을 얻게하자면 部分的 慾望을 拘束할 必要가 생길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지아니하면 안될것」 또는 「마땅히 하여서는 안될것」이라는 義務의 感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義務의 感이 생기는데 道德의 本義가 있는것이오 이러한 義務를 다하므로 因하여 全體로서의 自己滿足을 얻게하는데 道德의 目的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點에 關하여 美國의 「듀-위」 教授는 이와같이 말하였다. 「어떤 目的을 滿足시키려 할 때 그것이 그 目的을 일으키게한 動機를 滿足시킬뿐 아니라 全體로서의 自我를 참으로 滿足시킬만한 여러 動機와 要求에도 調和있게 滿足을 주어서 自我全體로서의 圓滿한 發展을 이루게 할수 있을 때에 그것을 道德的目的이라 한다. 卽 全體로서의 自我의 調和있는 滿足을 얻게하고 그러므로 因하여 더욱 自我를 發展케 하는데 ■■이 있도록 되어있는 目的이 道德的目的이다」

要컨데 우리의 活動이 全體의 自我의 調和있는 發展을 이루게 하는것이 우리의 道德的 目的이다. 우리는 이러한 道德的 目的을 達成함을 人格의 實現이라하는것이다.

그러면 全體로서의 自我의 實現이라는 「全體」는 大體로 어떠한 意味를 말함인가? 그것은 單只 斷片的部分의 集合을 意味한것이 아니오 普遍이 特殊的인 機能을 通하여 自己自身을 顯現함을 말함이다. 卽 ■體를 通하여 同質의 全體가 나타난것이다. 이 特殊화된 方面은 差別相을 이루고 이 同質的인 方面은 全體로서의 同一體를 이룬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精神生活은 그 本質에 있어서 다 같이 無限絶對的인것으로서 同一體이다. 이 同一體인 全體가 特殊한 境遇에 따라 差別相을 이루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生活을 하고 있으나 그 裡面에는 全體로서의 普遍이 움직이고 있는것이다. 各色多樣的 形相을 이룬 모든 菊花는 오즉 菊花의 本色을 나타내는데 菊花의 아름다움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또한 各色多樣的 生活形態를 이루고 있으나 그것은 오즉 無限絶對의 普遍이 나타나 있는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生理的生活도 經濟的活動도 倫理的意義를 갖게 될것이다. 우리의 一舉手一投足은 오즉 全體로서의 普遍이 特殊化한 實現體이다. 그러므로 伊太利의 「크로-체」 教授는 普遍은 곧 特殊요 特殊는 곧 普遍이라 하였다. 實로 우리는 特殊相에서 普遍을 찾고 變化에서 實在를 찾을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特殊한 곳에 普通을 나타내고 有限한것에 無限을 나타내고 個體의 가운데 全體를 나타내고 現實의 가운데 理想을 나타낸것이 全體로서의 自我를 實現한 길ियो 人格의 本質을 發揮한 길이다. 다시 말하면 無限한 精神生活을 有限한 現實界에 實現한것이 곧 우리의 道德的活動의 目的인것이다.

人格은 그 本質에 있어서 普遍的인 同時에 特殊的인 矛盾性을 가지고 있

다. 全體的인 同時에 部分的인 二面性이 있고 理性的인 二重性이 있다. 일즉 이 英國의 碩學 『알레-스』는 人格의 物質을 이와 같이 말하였다.

「人格에 있어서는 有限的의 現實과 無限的의 可能과의 사이에 對立이 있다. 現象的인 顯現과 本質的인 實在와에 사이에 對立이 있다. 特殊的인 一定한 것과 潛在的인 普遍과의 사이에 對立이 있다. 實로 人格이라함은 普遍 自由 無限인 實在를 特殊一定한 個體의 가운데에 實現하려하는 힘(力)이라. 人格은 이와 같이하여 一方으로는 個體 또는 個體化한 存在요 他方으로는 그 自身 普遍的인 것으로 無限自由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곧 人格의 不可思議한 偉觀이요 神秘한 矛盾이다」

이러한 矛盾性을 包含한 人格의 活動을 우리는 두 方面으로 노나 볼수 있을 것이다. 卽 個體的 有限的 特殊的 現實의 方面과 全體의 無限的 普遍的 理想的의 方面이다. 前者의 活動을 小我라 하겠고 後者의 活動을 大我라 하겠으니 우리는 이 小我를 버리고 大我를 實現한 것이 곧 道德的의 活動이라 하겠다. 小我是 곧 部分的 自我요 大我是 곧 全體의 自我인 까닭이다. 人格의 本質을 이와 같이 把握하고 그 矛盾性에 道德의 根本意義를 찾아일 때에 비로소 道德的 活動의 出發點은 明白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無限을 憧憬한다. 事實에 있어서 우리는 有限한 現實界에서 彷徨한다. 그러나 우리가 몸소 有限한 存在임을 自認한 것은 곧 우리 自身이 無限한 存在인 것을 말함이다. 우리의 精神은 그 本質에 있어서 無限活動이다. 그러므로 「데칼트」는 有限이라는 觀念보다 無限이라는 觀念이 더욱 明晰判明한 觀念이라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無限이라 함은 現象界에 있어서 끝없이 反覆하는 意味의 無限을 말함이 아니요 또한 數學上으로 말한와 無限數라는 意味의 無限을 말함도 아니다. 그것은 實로 有限을 契機로 삼은 統一體로서의 無限을 말함이다. 卽 有限을 한 要素로서 止揚된 無限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無限은 오즉 精神活動의 內部에서 찾아일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無限 卽 神을 現象界의 無限的系列에서 찾아일수 없는 것이요, 또한 有限界를 全然 超越한 無限世界에서도 求할수 없는 것이다. 神은 오즉 우리의 內部에서 求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 「오-가스틴」은 이와 같이 告白하였다.

「나는 이 地上에 無限을 求하였으나 드디어 얻지 못하였고 다시 天上에 求하였으나 또한 얻지 못하였다. 다만 내의 생각을 내의 內面에 向하여 움츠릴 때 一層 높은 곳에 오를수 있었으니 여기서 나는 참으로 神을 求하였노라」

이러한 無限은 곧 우리의 끊임 없는 活動과 努力에서 求할 것이니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人格은 發展하는것이요, 全體로서의 自我는 實現하는것이다. 人格은 實로 既成된것이 아니요 無限活動의 가운데에서 作成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우리는 神의 本義를 찾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社會我를 體現한다. 사람은 本來 社會的 存在이다. 個體는 오즉 全體의 特殊相이다. 自我와 他我是 一見差別相을 나타낸것이나, 內面에 있어서는 社會的으로 共通한 精神을 가지고 生存한다. 實로 各自個人은 平行線的 存在가 아니라 一心同圓의 存在이다. 卽 自我와 他我是 그 外形에 있어서 對立하여있으나 그 內面에 있어서 同一體이다. 그러므로 自我를 알게되면 他我를 알게되고 他我를 알게 되면 自我를 알게 될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社會我를 自覺하게 되는것이다. 일즉이 「왈레-스」는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精神的으로 참으로 살수 있음은 社會的 紐帶와 社會的 努力에 依함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統一體인것은 生理的 有機體인 까닭이 아니요 오즉 共通的 社會性이 있는가답이다」

이와 같이 自他的 共通意識에 依하여 社會는 構成된다. 社會는 單只 個人의 集合體가 아니요 또한 個人을 超越하여 있는것도 아니다. 오즉 社會는 個人의 內在的 本質的 關係에 依하여 成立된것이다. 그러므로 共通善의 實現이 可能한것이요 여기에 또한 道德的 活動의 根本意義가 있는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情念을 統制한다. 우리는 至高的 無限世界를 憧憬하고 隣人을 사랑하여 共通善을 實現한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情念의 世界에 屬한 感性的動物인것을 自覺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사람은 理性的 存在인 點에서 善의 實現體이다. 그러나 感性的存在인 點에서 惡의 包藏體이다. 情念의 奔放은 곧 우리를 이끌어 地獄에 빠지게 한다. 여기에 情念을 斷絶하므로써 道德的 活動의 本義도 삼은 禁慾主義가 생긴것이다. 그러나 情慾의 斷絶은 그 自身 아무런 意味를 갖지 못한것이요 오히려 사람의 活動을 萎縮케하는것이다. 實로 情念은 사람을 活動케 하는 刺戟劑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無限히 活動케하고 向上케하는 契機이다. 다만 그것을 節制하고 克服하는데 人格은 發展하는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우으로 神의 世界를 憧憬하고 社會的으로 隣人을 사랑하고 아래로 情念을 統制하는데 우리의 道德的 活動이 始作되는것이요 全體로서의 自我는 實現되는것이다. 그러므로 露西亞의 哲人「솔로비요후」는 畏敬 同情 羞恥의 세 感情을 道德의 基礎로 삼았다. 羞恥心은 人間性과 活動性과를 絶對的으로 區別할뿐 아니라 人間의 本質이 靈的存在임을 指示한다. 卽 사람은 羞恥의 感情에 依하여 情念의 世界를 버서나 自我의 眞生命을 發揮하게 한다. 同情心은 곧 사람의 道德的 結合의 基礎이다. 그것은 自他感應의

作用에 依하여 一致의 情 連帶의 感을 이룬가답이다. 畏敬心은 곧 사람의 宗教活動의 道德的基礎이다. 無限絶對를 憧憬하고 神에 對한 歸依와 信念이 곧 우리의 宗教的 道德的 感情이다. 이러한 畏敬의 感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至高의 世界에 參加하고 人格은 發展하여가는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人格은 螺旋形的으로 完全의 域에까지實現하는것이다. (一九三四, 一〇, 二三)